

금호타이어, 타이어 · 디자인상 수상

금호타이어는 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타이어 전시회인 <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10>에서 레이저 에칭 기술을 활용한 콘셉트 타이어로 올해의 타이어 제조 및 디자인 혁신상을 수상했다.

금호타이어의 콘셉트 타이어는 전기에너지로 빛을 만들어 가공하는 레이저 에칭 기술과 로고 형상화 패턴으로 2009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호평을 받았다.

12월에는 세계 4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첨단연구 부문 디자인상을 받았다.

자동차기업의 연구소와 대학교수 등 1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“그동안 많은 타이어기업이 레이저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했지만, 금호타이어 방식이 사실상의 첫 번째 성공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”고 평가했다.

금호타이어 연구본부장 조춘택 전무는 “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또 다시 국제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상을 받음으로써 금호타이어 기술의 우수성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2/22>